

## 「꿈나무 영등포」 편집위원회 회의록

<b>일시</b>	2013. 05. 30.(목) 16:00 ~ 18:00
<b>장소</b>	1층 회의실
<b>참석</b>	위원장(행정국장), 부위원장(홍보전산과장), 간사(언론홍보팀장), 편집위원 3명, 서기(업무담당자) 총 7명
<b>회의 내용</b>	<p>■ 기본업무 : 소식지 편집 및 내용 심의, 교정·교열</p> <p><b>[위원장]</b> 소식지가 분기별로 발행되다보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인사를 드립니다. 이번호도 어린이기자들 글과 유용한 구정소식 담아 정성껏 제작했으니 애정과 관심으로 검토해주시고,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<b>[부위원장]</b> 그럼 언론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간사님과 실무담당자와 함께 편하게 편집회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호도 잘 부탁드립니다.</p> <p><b>[간사]</b> 지난 5월 2013년도 어린이 명예기자를 새로 위촉했습니다. 이미 첫 활동도 시작해서 기자들과 함께 현장취재도 다녀왔습니다. 제가 이번에 담당자에게 주문한 것이 같은 곳을 가더라도 각기 다른 시점에서 기사를 작성하도록 기자들을 지도하라는 것이었는데, 여기 실린 글을 보니 그 의미가 잘 전달 된 것 같습니다.</p> <p>뿐만 아니라 저희는 가능한 한 여러 학교 기자들의 글을 실어 기사가 한 아이 또는 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.</p> <p>이번호는 위촉 후 첫 신문이라 성공적이지만 향후 관심도가 점점 떨어질 테니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지요.</p> <p>자, 그럼 이제부터 소식지 시안을 보시면서 편집디자인 검토와 교정교열, 각종 조언, 제안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<b>[A위원]</b> 2013년 신규 어린이기자를 주제로 표지를 잘 꾸몄네요. 다만 제호와 표지카피 사이를 좀 더 띄워서 가독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.</p> <p><b>[B위원]</b> 표지를 보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어디 있는지, 우리 반 친구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구요.</p>

[C위원] 신문을 보면 어린이기자 학교명 대부분에 '서울'이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지면이 있어요. 이것을 서울을 넣은 정식명칭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.

[A위원] 단오제례 일정이 여러 번 바뀌어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 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, 대표행사인 단오제례 시작 시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.

[B위원] 서울의 5대 궁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궁 이름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. 어린이기자가 쓴 종묘 대신 경희궁이 들어가야 맞을 것입니다.

[C위원] 5면, 종이팩, 종이컵 수거 캠페인에서 정말 종이팩을 헹굴 필요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. 동작구는 헹귀서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니깐요.

[B위원]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 때 현장취재를 좀 더 멀리 떠나도 된다면 Job월드(판교 소재)에 가서 아이들이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.

[C위원] 어떤 구에서는 전봇대에 어지럽게 붙은 전단지를 일정량 떼어오면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관련부서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꿈나무 영등포에 실을 수도 있겠죠.

[A위원] [B위원] [C위원] 시안에서 오타를 몇 개 발견하여 지면에 체크해 뒀습니다. 교정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.

[C위원] 현재 학교 내 왕따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.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한 아이에 대해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내는 새로운 수법이 유행합니다. 하여 9월호 주제면의 주제를 학교 내 왕따로 정해서 아이들의 기사, 선생님의 의견 등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

[위원장] 이번 편집회의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틀린 부분은 수정하고, 소식지 관련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호에 발행에 반영하겠습니다. 타 부서 관련 제안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
비고

초등교육, 학교생활 등에 대한 칼럼을 써주실 선생님이 있으시면 소개 요청